



희망에세이는 서울시립서북병원 결핵환우수기모음집

“빛으로 샘물로 희망을 찾는 사람들” 중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결핵으로 고통 받고 있으신 분들께 삶에 대한 희망과 생명의 불꽃을 지필 작은 희망을 드리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을 쓴 환우들의 이름은 기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불시에
들이닥친
건강
적신호

클
로
이
지
원

결핵이란 모름지기 전염성이 강한 병이고 그래서 치료기간이 길고 잘 낫지 않는다는 사실은 귀찮음으로 어슴프레 알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결핵과 내가 연관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 못한 채...

봄, 가을이면 으레 감기를 달고 살아 왔던 나는 올 가을 초입에 시작된 기침도 ‘감기가 또 찾아 왔겠거니’ 라고만 여기고 감기약만 지어 먹었다. 돌이켜보면 진작부터 조짐이 있었다.

두 아이를 키우는 40세의 건동한 주부로 열심히 가정을 꾸리랴 일하랴 바쁘게 살다보니 여름부터 시작되어 차츰 성가시게 다가온 소화불량으로 체중이 9kg 가량 빠져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기침, 가래를 사그라지게 하는 약을 먹으며 체기를 다스리기만 하였다.

그렇게 두 달이 흘러가고 10월에 들어서자, 더 기운이 없고 열이 부쩍 오르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동네 병원에 영양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어느 날 찍은 가슴 사진에서 결핵이 심한 상태임을 알

게 되었고, 당장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아야 했다. 그래도 설마하며 두려움에 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 시립서북병원에 와서 진찰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왼쪽 폐는 거의 다 망가져 가고 있었다. 오른쪽 폐도 이미 1/3 밖에 남아 있지 않아 폐기능이 제대로 된 폐를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심한 흉부 엑스선 사진 결과는 결핵 전문병원인 이곳에서도 그리 흔하게 보는 소견이 아니라며 놀라워 하셨다. 가족들과 나는 너무도 당황하고 어안이 병병하여 말도 나오지 않았다. 치료는 해보겠지만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에 주체하기 어려운 눈물이 쏟아졌다.

바로 입원하여 떨어지지 않는 고열과 그칠 줄 모르는 기침과 쏟아져 나오는 가래와의 고통 어린 싸움을 시작했다. 단지 두 달만에 어떻게 그 건강했던 사람이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믿겨지지 않았다. 건강하고 활달했던 나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무방비로 있을 때, 나는 누가 봐도 초췌한 병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사이 결핵균은 나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었다.

한 번 열이 오르면 하루에 대여섯 번씩 40°C를 넘나드는 열에 시달리고 독한 결핵약으로 구역질이 생기며 기력이 다해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 고통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세상에 안 아픈 병이 있을까마는, 결핵도 극도로 아프고 괴로운 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워낙 폐가 많이 상한 상태인지라, 치료는 지금도 더디게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 없지만 약을 먹어도 기침이 오래가면 반드시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어느 누구라도 나처럼 어리석은 후회를 하지 않길 바란다.

어느 날, 엄마가 오갈 데 없는 분을 데려오셔서 거처가 정해지는 동안만 계시기로 했다며 우리 집 빈방을 내드렸다. 짐을 챙겨오시는 날, 처음 보는 신기한 산소통과 일명 '칙칙이'라는 흡입기가 아주머니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게 뭘까 진짜 궁금했다. 언니와 난 그 아주머니가 불쌍해 보여서 이것저것 챙겨드리느라 그 방에 자주 들락거렸고 아주머니도 심심하다며 놀러오라가 해서 학교 갔다오면 항상 아주머니 방부터 찾게 되었다. 그런 생활이 근 1년 정도 지나간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무슨 언짢은 소식을 들었는지 그 아주머니에게 거처를 옮겨달라고 말씀하셔서 아주머니는 우리집을 떠나게 되었다. 아주머니가 결핵이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동안 언니와 난 건강하게 잘 지냈다. 그런데 얼마 후 언니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자주 기침을 해댔다. 감기약을 먹어봐도 낫지 않길래 동네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결핵이라며 혹시 집안에 결핵환자가 있는지 물어보셨다. 언니는 선생님과 상담 후 결핵약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니는 약 먹는 일을 무시하며 대충대충 먹고 엄마가 야단칠때만 먹었다. 당시 언니가 아직 어려서 결핵이라는 병을 너무 우습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스스로 판단해서 두 달 정도만 약을 먹고 끊어버렸고 그리고는 학교를 졸업해 직장을 다니며 회사생활을 하면서 결핵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후 언니는 집을 나가서 자취를 하겠다고 엮포를 놓았다. 엄마는 의외로 고생을 좀 해보라며 놔두었고, 언니는 언니 마음대로 지금의 형부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면서 가족과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하지만 1년 정도 후 형부에게 갑작스런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

가 다 죽어간다고, 119를 불러서 시립서북병원에 와 있다고 하였다. 병원에서 도착해서 엄마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아버지는 침묵 뿐이었다.

의사 선생님도 환자 상태가 힘들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 언니는 약을 먹는 즉시 토해낼 정도로 위가 다 망가져 살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하느님의 손길을 맡길 수 밖에 없었다. 온 가족이 언니 때문에 밤낮을 울면서 기도하였다. 언니도 울면서 가족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살고 싶다는 어떻게 해서든 약을 먹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였다. 모든 가족들이 하루하루를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생님이 주신 약과 간호사님들의 보살핌 덕분에 아주 조금씩 차도가 나타났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처음 약을 잘먹었다면 이런 고생을 안했을 터인데 후회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오로지 살고자 하는 의지로 약과 음식으로 어려운 고비를 간신히 넘기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결핵이라는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였다.

병원생활 3년 후 언니는 완치가 되었다. 병원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함께 축하해 주었다. 언니는 양쪽 폐가 거의 남아있지 않음에도 지금은 1남 2녀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물론 지금 언니는 결핵에서 벗어난 지 10이 훨씬 넘었음에도 꾸준히 6개월에 한번 씩은 흉부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있다.

언니를 통해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도 지금 결핵을 앓고 있는데, 착실히 치료하여 연말이면 약을 끊을 예정이다. 이처럼 결핵은 자칫 잘못하면 온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위험 임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